

人
스토리
서른 다섯 번째
김혜지



인생, 흐린 뒤 맑음

이야기·그리기: 김혜지 듣고 쓰기: 배성일·엄예슬

더 커서도 더 바빠서
정말 아저 언수한 땅콩마시것에 감이 들었다
나 김혜지. 1966년 부산 중 김기네의
귀여운 아들들이고 태어났다 워낙 민이 오빠가
머뭇이노 들어왔다
박내의 특기란가 우리 가족은 키가 큰정
큰 언니 오빠들 사이에서
조그마한 평범한 배경의 아들은
나는 흐릿하게 바리 날았다.



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
천권도서관 人 스토리



人스토리 서른 다섯 번째 김혜지

인생, 흐린 뒤 맑음

이야기·그리기: 김혜지 듣고 쓰기: 배성일·엄예슬



소꿉놀이를 하면 머니에 바늘이든 노름이 골골했
다. 바늘에 바지는 노름까만 내 줄어도 알릴까 했
다. 잇는 줄만 알았다



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

